

김관영 지사 “차분히 길을 찾겠다”

“제 불찰” 제명 수용하며 도정 집중 의지
“가혹한 밤” 충격 속 당 결정 아쉬움 표명
소명 기회 부족 주장...절차문제 언급



김관영 지사

큰 충격을 받았습니
다”라며 이같이 밝혔
다.
이어 “하지만 문제
를 인지한 즉시 바로
잡았고 성실히 소명
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면서도 “저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 잡담

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성과, 미래를 향한 도정마저
부정당한 것 같다”며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
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
다. 큰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저는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향후 진로와 관련, “차분히 길을 찾
겠다”면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주
신 도민 여러분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머리
를 거듭 숙였다.

/서울=김영목기자

김관영 전북지사는 2일 민주당의 제명 결정과
관련, “모두 제 불찰입니다”라고 사실상 제명을
수용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혹
한 밤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전북도, 영농기 전
가뭄 선제 대응 나서
전북도는 2일 임실군 성진강댐지사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계 부서와 정읍·김제·임실·부안군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관
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 대비 관계기관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민주당, 김 지사 전격 제명...전북정가 ‘초대형 충격’

민중 최고위 만장일치 의결 1일 밤 제명
즉시 회수 vs 참석자 진술 엇갈려
경선 구도 이원택·안호영 2파전 재편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 지사 소환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못했다”면서 “이러
저러한 상황을 감안해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
고 판단했다”고 제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덕적 검증
기준을 최고로 높인다는 것이었다”며 “경위를
떠나 현직 광역단체장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
가 있었고, CCTV에 녹화돼 국민에 보도되는 상
황을 미온적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돈봉투제공과 관련, “지난해 11
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대리
기사 비용 명목으로 총 68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
다”면서도 “지금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

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
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돈을 돌려달라는 말
은 들은 적도, 돌려준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 사
건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의 김 지사 제명에 따라 민주당의 전북
지사 후보 경선은 이원택·안호영 의원간의 2파
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김 지사와 정책연대를 해온 안호영 의원은 전
날 김지사와의 정책연대를 제시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제명됨에 따라
사퇴하지 않고 경선에 임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김관영 전북지사가 현
금을 살포와 관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
치로 전격 제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
에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면서 “금품 제공
정황이 파악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의 만장
일치로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一事一言〉

도민의 선택을 지운 하룻밤, 누구를 위한 제명인가

최준호 / 전북타임스 대표

‘클린 공천’ 쇼의 제물로
전북을 선택한 민주당의 오만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그 권위를 얻는다. 그러나 이번 김관영 전북
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단죄 과정에
는 실제적 진실도, 민주적 절차도, 전북도민
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었다.

지난 4월 1일, 전북 정가는 만우절 거짓말
같은 참담한 소식을 접했다. 오전 10시 정
청래 민주당 대표의 긴급 윤리감찰 지시가
내려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늦은 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자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던 김관영 지사를 전격 제
명했다. 죄명은 ‘금품 제공 의혹’. 지난해 11
월 말, 식사 후 대리비 명목으로 총 68만 원
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현직 지사를 당에서 축출하고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중대 결정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린 이 ‘빛의 속도’ 처분을 우리
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물론 공직선
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은 엄격히 준수되어
야 할 법적 가치다. 김 지사 본인도 “경솔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
제명 처분은 사안의 실체를 가리기도 전에
내린 정치적 이해득실의 산물이자, 전북을
제물로 삼은 ‘졸속 심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먼저 형평성의 잣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 권력층의 비위에 민주당은 그간
얼마나 관대했는가.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
을 받고도 ‘인원수 나누기’라는 궤변으로 기
소조차 피했던 검사들의 사례를 국민은 기
억한다. 타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술한 비위
의혹에는 ‘사법부 판단’을 전제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던 민주당이다. 그런데 유독 전
북에서는 68만 원이라는, 한국적 정서가 섞
인 ‘대리비’ 사안을 두고 단 하룻밤 만에 정
치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것이 민주당이
외치는 정의인가, 아니면 만만한 전북을 향
한 길들이기인가.

사건의 맥락은 더욱 해괴하다. 김 지사가
대리비를 건넨 대상은 지역 시·군의원들
과 청년 당원들이다. 술자리가 끝난 뒤 연장
자가 대리비를 챙겨주는 행위는 우리 정서
상 오랜 미덕으로 통용되어 왔다. 대리비가
없어서 받은 것도 아닐 테고, 김 지사 또한
이들에게 무슨 거창한 대가를 바꿨다면 식
당 CCTV가 뻗어 돌아가는 공개된 장소에
서 소액을 낱알이 나누어 주는 어리석은 짓
을 했겠는가. 취기를 빌린 ‘정서적 배려’였
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적절함을 인지하

고 즉각 회수했다는 소명은 최소한의 정상
참작 사유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소명 절차를
사실상 몽개고 제명을 강행했다. 6.3 지방선
거를 앞두고 ‘클린 공천’ 쇼를 하기 위해 전
북이라는 확실한 텃밭을 희생양으로 삼았
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에게 전
북은 언제나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인가.
도민들이 선택한 도지사를 당 지도부가 하
룻밤 새 낙마시키는 행위는 175만 전북도
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오만한 처
사다.

이번 사건을 ‘현금 살포’라는 거창한 프
래임으로 씌우는 것 또한 억지스럽다. 현직
시·군의원들이 고작 몇 만 원의 대리비에
매수될 존재들인가. 이를 두고 선거 당락을
좌우할 중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정치적 폭력이다. 민주당의 ‘명백
한 불법’ 판단이 법원의 확정판결보다 앞설
만큼 절대적이란 말인가.

더 큰 문제는 전북의 시계가 멈춰 섰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초기 안정화,
새만금 예산 복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한시가 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직
지사가 당적을 잃고 범죄자 프레임에 갇힌
상황에서 국책 사업들이 동력을 얻을 리 만
무하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결정이 전북의
미래를 인질로 잡은 셈이다. 도지사의 행정
력과 비전은 외면한 채, 단 한 번의 경솔함
을 빌미로 전북의 리더십을 해체한 처사를
도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투명하게 재조사하
라. CCTV 영상 하나에 기대어 ‘정치적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돈의 성격과 회
수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선행되었어
야 했다. 이번 결정이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
나 외부 공세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
었는지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관영 지사 역시 도정 수장으로서 오해
를 살 행동을 한 실책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과(過)에 대한 책임은 정당의
편의주의적 가위질이 아닌 법적 절차와 민
심의 심판에 따라 물어야 한다.

전북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
당이 전북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일반적
인 징계를 멈추고 공정한 소명 기회를 보장
하라. 행정의 시계가 시민의 하루를 향해야
하듯, 정치의 시계 또한 당리당략이 아닌 국
민의 상식을 향해야 한다. 지금 도민들이 느
끼는 것은 공의(公義)가 아니라 거대 정당
의 오만한 횡포다. 닫아버린 민주당의 문이
전북의 미래마저 닫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토지구입자금
입업인대출**
:입업경영 또는 임산물생산을
목적으로 자기사업장 마련에
필요한 토지구입자금

- ▶대출대상
입업에 종사하는 자 중 농산보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인자
- ▶대출한도
소요자금(토지매매대금 중
잔금기준)의 80%이내
- ▶지원대상토지
입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부지(임야, 전, 답 등)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가능

**개인사업자
대박대출**
:운영자금 및 생활자금

- ▶대출대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 ▶대출한도
감정가 및 시세 대비
최고 80%이내
- ▶지원대상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임야, 주택,
상가, 공장, 햇살론보증서 등

장수군산림조합

■ 조합원 가입안내
해당구역 안에 주소 떠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해당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원

■ 조합원 가입혜택
당기 순이익 발생 시 배당금 지급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선거권 의결권을 통한 직접적인 조합운영 참여

■ 조합원 가입방법
신분증 사본, 임야대장 또는 임야 주소

소상공인정택자금

- ▶대출대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대출한도
최고1억
- ▶금리
2%~2.77%

산림사업융합자금

- ▶대출대상
입업인
- ▶대출한도
최고3억
- ▶금리
1%~3%

항상 우리 장수군 산림조합은 임산물 생산자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우)55633 장수군 장수읍 준비길 9
Tel 063)351-5030 Fax063)351-5035

전북도, 반려동물산업 산학연관 협력체계 가동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협의회 개최 17명 규모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익산·임실 중심 특화 전략 확대 동물헬스케어·관광 연계 고도화

전북도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반려동물산업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시군별 사업 방향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과 이정환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장을 비롯해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기업, 행정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도내 반려동물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반려동물산업 추진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로, 기업·대학·의료기관·전문기관·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동추진단장을 중심으로 총 17명 규모로 구성돼 있으며, 정책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 국제사업 발굴, 기업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3년부터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익산은 동물약품과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동물헬스케어', 임실은 반려동물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라이프케어'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군별 사업 방향 보고와 함께 질의·토론을 통해 산업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으며, 특히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 확대, 국제사업 공동 대응, 기업 유치 연계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또 지난 3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전북대, 원광대가 체결한 '동물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학과 간 교육과정 연계, 연구 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 방안이 검토됐고, 오는 5월 개막 예정인 '임실N팻스타'와 연계한 산업 홍보 및 지역 확산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반기별 협의회와 포럼·세미나를 개최하고, 시군별 전문가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타 시도 벤치마킹과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상반기 정규직 5명 선발 블라인드·NCS 기반 공정 진행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에서 2026년 상반기 정규직인 5명 전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이번 채용규모는 일반직 5명으로, 직렬별 인원은 일반행정 2명, 회계 1명, 토목 1명, 건축 1명이다. 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내 실업률 해소 및 지역인재 고용에 기여하기 위해 전북 출신 인재를 대상으로 채용한다.

또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용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활용해 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24일이고, 5월 9일 필기시험 등을 거쳐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공사 김대근 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도정의 핵심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에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채용형 인턴도 채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반할주택 2단계 진안·순창 공급

청년·신혼 주거안정 200세대 확대 보증금 무이자·임대료 50% 감면 출산 시 임대료 전액 감면 연계

전북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2단계 공모사업 대상지로 진안군과 순창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내 인구감소지역을 대

상으로 2개 시·군, 200세대 규모의 반할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에는 진안군·순창군 등 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전북개발공사 주관 평가위원회가 입지 여건, 사업 추진 가능성, 생활 인프라 접근성, 정주여건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지원 ▲월 임대료 50% 감면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 전액 감면 ▲1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 기회 제공 등 혜택을 갖춘 전북자치도 대표 주거정책이다. 특히 출산과 연계한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는 주거 지원과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500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중장기 주거정책으로, 총사업비 1,60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1단계로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등 3개 시·군 320세대가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2단계 사업은 상반기 중 협약 체결 등을 마무리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김관영 도정 계승 넘어 확장할 것"

도정 공백 최소화 필요성 제기 정책연대 유지 '통합·전진' 제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2일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제명 이후 도정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계승과 확장'의 리더십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중단 없는 전진을 책임지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결정은 국민 앞에 설득이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동지로서 함께해온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지사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노력과 성과는 부정될 수 없는 도정의 자산"이라며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전북의 기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정책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어야 한다. 김관영 도정의 성과를 계승하되, 이를 넘어 확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 정책 연대를 바탕으로 도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지역 소멸과 산업구조 전환, 청년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관리 중심의 행정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방향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3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명과 예산을 다뤄온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의 핵심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전북 도



안호영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지사와 정책연대를 통해 도정은 안정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사진=안호영의원실>

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 전략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의 결합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RE100 기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전북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인물 경쟁을 넘어 전북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며 "갈등이 아닌 통합, 멈춤이 아닌 전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 발전의 책임자이자 준비된 도지사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올해의 건배주' 4개 제품 확정

탁주·청주·과실·증류주별 1종 전통주 경쟁력 강화·소비 촉진 모색 도 공식행사 활용·판로 확대 지원

전북도는 지역 전통주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건배주는 ▲탁주 부문 '한국술도가의 빨간월탁(정읍)' ▲약·청주 부문 '유유양조의 변산노을(부안)' ▲과실주 부문 '배산명주사 고창LB의 북분자음(고창)' ▲증류주 부문 '비즈양조의 화동원42(남원)' 등 총 4개 제품이다. '올해의 건배주'는 전북 지역의 우수한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올해는 업체당 부문별 1개 제품씩 최대 2개 부문까지 중복 출품을 허용하고, 제품 평가 비중을 70%로 상향하는 등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공모에는 9개 시군에서 총 17개 제품이 출품됐으며, 서류 및 관능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제품을 선정했다. 서류 평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비율과 인공 감



시계방향으로 정읍 빨간월탁, 부안 변산노을, 고창 북분자음, 남원 화동원42 <사진=전북도>

미료 첨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관능 평가는 주류 전문가 5인이 참여해 맛과 향, 색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도는 지난해 선정된 건배주를 도 공식 행사에 활용하며 전통주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올해의 건배주' 역시 공식 행사 건배주로 활용하고, 언론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촉 행

사 등을 통해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올해의 건배주 선정을 통해 전북 전통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생생장터·도민증 동시 가입 이벤트 추진

전북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전북생생장터'와 전북사랑도민증을 연계한 동시 가입 행사가 추진된다.

도는 2일 이번 행사는 두 플랫폼을 함께 가입할 경우 1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배송비 포함한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동 선정·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북생생장터 기존 회원 중 전북사랑도민증 신규 가입자 또는 전북사랑도민증 가입자 중 전북생생장터 신규 회원이다. 특히 이용자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분기별로 제공 품목을 달리해 다양한 전북 농특산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2분기(4~6월) 제공 품목은 ▲대추방울토마토 ▲유리피안 샐러드 상추 ▲천연한끼 콩나물해물 육수팩 등 3종으로 구성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다만 해액은 2026년 전북사랑도민증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제공되며, 2025년 이전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은지 기자

미세먼지 관리 방법



01 실내공기관리

공기청정기사용 하거나 환기 시
미세먼지농도 낮은 시간선택.
실내습도는 40~60%



02 외출

외출은 최소화 차단효과 높은 KF80
등급이상의마스크 착용, 귀가 후
속 털어 내고 샤워철저



03 식생활/건강관리

면역력 강화를 위해 항산화효과
음식섭취 충분한 물 섭취로
미세먼지 배출 돕기

전주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사업 추진

영어·일본어·중국어 4개 국어 메뉴판 보급

전주시가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전주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했다. 이에 시는 전주지역 모범음식점 130여 곳을 대상으로 '디지털 다국어 메뉴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전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언어 장벽'을 해소하며 편리한 전

주 식당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평소 철저한 위생 관리와 우수한 서비스로 시의 인증을 받은 '모범음식점'이다. 시는 이차업 영업주들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과 3월 전주지역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총 132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오는 7월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메뉴 자료 수집과 외국어 번역, 디자인 시간 확정 등 맞춤형 메뉴판을 제작해 각 업소에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 고유의 향토음식이나 업소별 특색 있는 메뉴가 낯선 외국인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다국어 메뉴판은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등 4개 국어로 제공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매장 내에 비치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메뉴의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해당 언어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범음식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탁상용 아크릴 스탠드와 출입문 안내 스티커도 함께 배부한다. 아울러 시는 메뉴판 보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1년간 메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수정해 주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운영

전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전주시가 올해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시민 안전 이통과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시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시는 4월부터 오는 2027년 3월까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 보험은 전주시민 누구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끼친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주요 보장 대상은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한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대인 피해 △타인의 재

물(차량, 주차차단기, 엘리베이터 등) 파손 △기기 운행 중 물건을 밀거나 부딪혀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02-6952-5133)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의 파손 손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가 사고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돼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준다. 한편 시는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드론축구 "미래 스트라이커 꿈 키운다!"

전주지역 초등학교 20학급 대상 '드론축구 연계 체험' 시범 운영

전주시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어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축구 체험 확대에 나섰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25일까지 전주지역 9개 초등학교의 20개 학급(423명)이 참여하는 '드론축구 초등학생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교육 인프라와 전문기관의 역량을 결집한 협력 모델로 추진된다. 또 프로그램은 시와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했다. 아울러 시가 장소를 제공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전문가 강사 및 커리큘럼을 맡았다. 또,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는 대상 학교 모집과 차

량 운행 지원에 나선다. 교육 과정은 총 120분간 진행된다. 참여한 학생들은 30분간 진행되는 이론 과정을 통해 드론의 구조와 비행 원리, 드론축구의 규정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어 90분간의 체험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드론볼'을 조종하며 호버링(정지 비행) 연습과 장애물 통과 비행 계

임 등을 즐기며 드론과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는다. 앞서 시는 이번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2월 전주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시범운영이 끝나는 오는 7월 중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운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주요 유적 국가유산 지정·국가 재정지원 '한목소리'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2일 '2026년도 정기회의' 개최

전주시는 후백제 역사문화 공유하는 국내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후백제 주요 유적 국가유산 지정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회원 기관 부단체장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기회의를 개최

했다. 회의는 2026년 공동 추진 과제를 확정하는 등 후백제 역사문화권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꾸며졌다. 주요 안건은 △2025년 사업 결산 및 성과 보고 △후백제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보존·정비의 국가 주도 전락사업 격상 촉구 공동성명문 심의·의결 △2026년 공동 사업으로 국회 학술대회 심의·의결 △학술·교류 사업 계획 확정 등이다.

이 자리에서 공동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은 향후 협의회 차원의 △후백제역사문화권 발전포럼 개최 △학술 연구 △발굴지원 사업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한 지역 및 광역간 통합 브랜드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경계를 넘어 후백제 역사를 하나의 광역 문화자원으로 연계하는 사업모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회원도시들은 각 지자체별 특화 자원을 묶어 광역 관광·교육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 사업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항저우(杭州)·닝보(寧波)·후저우(湖州)·수저우(蘇州) 등 오월 문화 주요 거점을 방문하여 양국 역사 교류의 흔적을 살피고, 이를 학술·외교적 자산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도시 도약 회의 개최

2일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회의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주요업무계획 공유·현장의 목소리 청취

전주시는 글로벌 산업 변화 대응과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에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신성장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2일 '2026년 상반기 신성장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올해 중점 추진되는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며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위원들은 먼저 올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과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자유토의에서는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춘 전주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다양한 정책적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시는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키로 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지방환경청 용담호·옥정호 특별점검

조류 발생 선제적 대응 돌입 녹조 발생 사전 예방 상수원 인근 5개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 실시

4월 중 도내 주요 상수원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상 전북지방환경청 특별

점검이 추진된다. 특별점검은 전북권 주요 상수원 용담호·옥정호의 2023년부터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은 전북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534개소 중 용담호·옥정호 수계 오염

부하량이 높고 주민 식수원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전북지방환경청과 상수원 인근 5개 지방정부(정읍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와 합동으로 실시해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산불 예방·신속 대응 총력

전주덕진소방서가 청명·한식 기간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 증가와 영농 준비 활동에 의한 산림 소각행위나 불

씨 방치 등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전북 지역 청명·한식 기간 총 105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임야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90.2%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4일 09시부터 7일 0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특별경계근무는 산불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시간대(10시~16시)를 중심으로 집중 예방순찰을 실시한다.

산림 인접지역에는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거점 순찰을 강화하고, 예비주수 활동을 통해 화재 확산을 사전에 억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전 직원 비상연락망 점검과 비상응수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홍보 컨퍼런스 개최

국가 R&D 추진기관 대상 현대차 대규모 투자 계획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2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국책연구기관 등 국가 연구개발(R&D)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연구개발과 산업거점 경쟁력을 소개하는 홍보 컨퍼

런스를 개최했다. 행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전략적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널리 알리고, 향후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

단지만 차별화된 입지적·제도적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지역에는 다수의 연구기관이 이미 입주·운영 중이고, 기업 집적과 함께 다양한 실증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산·학·연 협력 기반도 형성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의 인공지능(AI), 수소, 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의 K-R&D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과 산업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육성방향과 맞닿아 있어, 새만금은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가는데 있어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정소민 기자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추가모집

전주시, 오는 16일까지 추가모집

전주시가 오는 16일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 그룹형 1대1 제공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도 전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의 3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전

문 인력을 통해 1대1로 제공된다. 추가 모집은 시·군·구당 2개소 이상 기관운영을 권장함에 따라 1개소 추가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선정을 위한 것이다. 전주시 소재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기관에 대해 서류·자격 확인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2년 11개월 동안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박태원 교수, 틱 장애 의학만화책 발간



전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태원 교수는 틱(Tic) 장애를 겪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의학 만화책 '틱 장애 이해하기'를 발간했다.

만 지식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특히 틱장애의 주요 증상과 진단, 치료 과정, 일상에서의 관리 방법 등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담았다.

이번 도서는 웅진재단이 기획한 '희귀질환 어린이를 위한 의학만화 시리즈'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틱장애를 겪는 환아와 보호자들이 질환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 전문적인 의학 정보를 만화 형식으로 풀어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치료와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태원 교수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베테랑 전문의로,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

이를 통해 틱장애 환아와 가족들이 질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오해를 줄이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책 내용은 △틱 증상의 원인과 신경생물학적 이해 △진단 기준 및 최신 치료법 △가정 내 부모의 역할 및 학교생활 가이드 등을 담고 있다. 틱장애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명확히 알리고, 환아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조언들이 수록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찰청 첨단 드론 활용 참여형 체감안전 캠페인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 기동순찰대 드론팀은 지난 1일 경찰학과 동아리인 캠퍼스폴리스(지도교수 박종승)와 함께 '첨단 드론 활용 참여형 체감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미래의 경찰관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드론 치안 시스템을 체험하고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경·학 협

력형 스마트 치안' 모델로 기획됐다. 드론팀과 학생들은 지상에서도 긴밀히 호흡을 맞췄다. 학생들은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캠퍼스 내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범죄예방 진단 활동도 병행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시

총 610억원 규모 자금난 완화 도모... 오는 6일부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화를 위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분기 신청을 오는 6일부터 받는다.

이번 2분기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50억원,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벤처기업육성자금 60억원 등 총 610억원이 편성돼 지원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기업의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공장 및 부지 매입이나 기계설비 구매가 필요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5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다.

협약금리 4.35% 중 2.18%는 전북도 이차보전으로 지원되며 기업의 실제 부담금리는 2.17%이다.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체투자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돼 있다. 기업당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며 은행이 설정한 대출금리에서 전북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2%에서 3%를 제외한 금리만을 기업이 부담하면 된다.

도내 우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자금도 지원된다.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협약금리 4.35%에 이차보전 3.18%가 지원돼 기업은 1.17%의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접수는 자금별로 기간이 나뉘어 진행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경영안정자금은 13일부터 17일까지 △벤처기업육성자금은 20일부터 24일까지 신청받는다. 모든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융합지원시스템(www.jbok.kr)'을 통한 온라인으



로만 진행되며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사진=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편 전북도는 중등 분점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중등분쟁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상시 접수한다. 2025년도 직접 수출입 실적 또는 직접피해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하며 이차보전율은 2%가 적용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전북

도 홈페이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분기별 자금 미소진 시 분기 내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추가 접수가 진행되며, 분기별 자금이 조기에 소진되면 용자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 영농폐기물 수거

농심천심 실천활동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이 육성하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2일 부안군 일대에서 농심천심 실천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소속 회원인 행복나눔봉사단 10여명은 농경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병 등을 직접 수거하며, 농촌 환경오염 예방과 깨끗한 영농환경 조성에 힘썼다.

김경리회장은 "농촌을 생각하는 농심천심운동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취약계층대상 반찬봉사, 재해현장복구지원,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 행안부 공공데이터 평가 '우수기관'

전년 대비 16.35점 ↑ 데이터 경쟁력 입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따라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종합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며, 결과는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된다.

공사는 전년 대비 16.35점 상승한 93.8점을 기록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 재난·안전분야 AI 고가치 공공데

이터 TOP 100으로 선정되는 등 데이터 신뢰성과 우수성을 입증했으며, 데이터 안신구역을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4개 기관과 협업 데이터를 생산·제공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점검 데이터를 전국 대학생 데이터 경진대회에 제공해 국토부장관상 수상에 기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남화영 사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전기안전 데이터의 발굴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

전북상협 '전북경제 살리기' 정책 제안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일 전북 상공업계의 정책 제안서인 '함께 만드는 전북의 미래'를 발간해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각 정당과 도내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전북 상공인 모두의 간절함을 담은 4개 분야 22개의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에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전북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5개 과제를 제안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기반 구축 분야에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인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속 착공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등 전북 3개 노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새만금 신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한 배후부지 재정 전환 △

새만금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건설 등 6개 과제가 포함됐다.

또 지역 상공인들은 세제지원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 취업 청년 세제 및 금융 혜택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부담 완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중소기업 기업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노동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분야에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제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비수도권 중소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지원 △중소기업의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사항 이행 지원 등 6개 과제가 담겼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이번 공약집은 단순한 요구사항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의 기업인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절실함을 담은 정책 보고서"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를 적극 수용해 전북의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마중물로 삼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고유가 시대, 노란우산이 주유비 쏘니다"

4월 한달간 PC·모바일로 가입시 주유권 증정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4월 한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오는 29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 시 주유권 쿠폰(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급되는 주유권 쿠폰은 국내 주요 정유사 브랜드(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를 아우르는 통합 구성으로, 이용자가 선호 브랜드와 주유소 접근성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놓치지 않는 혜택 중 하나다. 올해 전북지역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은 총 12억7,600만원으로 전년(12억)대비 5.83% 증가했다.

희망장려금은 도내 14개 시군별로 해당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확대

를 위해 신규가입자 대상으로 월 2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입 수요 폭증으로 인해 전주시와 완주군은 현재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돼 지원이 마감됐으므로, 해당 지역 및 시·군 가입자들은 잔여 예산 확인을 통해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노란우산 가입 열기는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분기(1~3월)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2,80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284명대비 2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2026년 2분기(4~6월) 노란우산 기준이율을 기존보다 0.2%p 인상한 3.2%로 결정,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이율 인상에 따라 폐업·사망 시 지급되는 이율도 기존 3.3%에서 3.5%로 상승되는 등 노란우산 가입자의 부담 적정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 4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7만명을 넘



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중기중 전북지역본부>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납부해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임승중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중등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며 "이러한 시

기일수록 노란우산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과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경영안정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 전달

축종별 사고 사례 및 예방 수칙 담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를 전달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노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

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노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

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와 발판 설치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과 각 협회 관계자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전 예방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최소영 과장은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험 요인을 간과해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현장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축산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종별 사고 사례와 예방 수칙을 담은 지침서(매뉴얼)를 꾸준히 보급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기업뱅킹 거래승인체계' 개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기업고객의 자금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기업뱅킹 거래승인체계를 4월부터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리 설정한 한도 내에서서는 대표자가 부재중이어도 자금이체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대표자의 직접 거래 또는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사전에 설정된 관련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이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즉시 승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금 집행 지연이 최소화된다.

보안성도 강화했다. 직원별로 개별 OTP를 부여하고 본인 거래만 승인하도록 해 거래 주체를 명확

히 했다. 또한 기간, 결제, 실행단계가 분리돼 다중 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처리 속도 역시 개선됐다. 기존의 순차 결제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결제자가 동시에 승인할 수 있어 결제 대기시간이 단축됐으며, 이체금액 확정 이후 최대 3일 이내 실행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졌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 관리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고객의 실제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사립유치원 65% '5세 이음교육' 외면

대상 3배 늘리며 지원금 5분의 1토막 사립 행정 부담 가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5세 이음교육' 사업에서 도내 사립유치원의 64.7%가 참여를 포기했다. 공립유치원 참여율 93.8%와 격차를 보이면서, 재원 기관에 따른 유아 간 교육 지원 편차가 발생했다.

2일 전북교육청의 '2026년 5세 이음교육 사업 매칭 현황'을 보면, 도내 공립

유치원은 대상 242곳 중 227곳(93.8%)이 인근 초등학교와 매칭을 완료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대상 99곳 중 35곳(35.3%)만 참여했고, 나머지 64곳(64.7%)은 연계를 포기했다.

'5세 이음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교육과정을 연계해 유아의 학교 적응을 돕는 전북교육청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저조한 참여는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삭감과 행정 부담에서 비롯됐다.

교육부의 전국 확대 방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업 대상을 도내 전체 유치원 372곳으로 전년(118곳) 대비 3배 이상 늘렸다. 이 과정에서 개별 유치

원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 일괄 지급에서 설립 유형과 학급 규모에 따라 100만~2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예산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내실 있는 초등 연계 프로그램 기획과 교보재 마련이 어려워졌고, 교육청이 요구하는 계획서 및 행정 업무량은 과거와 동일해 전담 행정 인력이 부족한 사립유치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청은 최종 미매치 시 '유치원 자체 운영' 방침을 정해 실제 책임을 개별 유치원에 넘겼다.

도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아이들을 위한 내실

있는 연계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행정 전담 직원이 있는 대형 유치원과 달리 대부분 사립유치원은 원장이나 교사가 서류 작업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고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무조건 강제할 수 없어 매칭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미매칭 사립유치원에 선도 교사를 투입하는 등 매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참여 유치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사진=호원대>

호원대, 한국항공대·기업 '보다'와 MOU

RISE 드론산업 고도화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일 한국항공대학교(첨단무인기연구센터장 송용규)와 주식회사 보다(대표 김영우)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남원시와 공동 추진 중인 RISE 사업의 고도화에 나섰다

한국항공대학교와의 협약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항공·드론 기술력과 교육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연구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드론 기술 교육을 넘어 콘텐츠 제작, 퍼포먼스 연출, 창업까지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남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실습형 교육과 현장 중심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체결된 주식회사 보다와의 협약은 드론 교육과 산업 추진 중인 RISE 사업의 실용형 협력에 의미가 있다. 호원대 정의봉 부총장(RISE사업단 단장)은 "지역 기반의 교육·산업 모델 구축을 통해 청년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유성동·황호진 예비후보 '정책 연대' 선언

양측 "현재 단일화 논의 없어 완주 목표" 선 그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성동, 황호진 예비후보가 '정책·혁신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의 교집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향후 발표할 개별 공약의 상호 검증과 타 후보에 대한 공동 견제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동의 현장 교육 전문성과 황호진의 교육 행정 전문성을 발휘해 연대의 시너지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학력 신장, 행정 혁신, 교원업무 경감 등 핵심 교육 정책 기조를 함께하며, 다른 예비후보들의 정책도 정

해진 기준에 의거해 공동으로 검증하겠다고 합의했다. 특히 앞으로 발표될 개별 공약 역시 사전에 상호 검증과 동의 과정을 거친 후 발표할 계획이다.

두 후보는 공동 선언문에서 현재의 선거판을 "정치적 세몰이, 도덕성 논란, 내로남불,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규탄했다.

이러한 질의응답에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황 후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유 후보는 "과거 이남호 후보의 공약을 검증했더니 나에게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공격했다"며 특정 캠프와의 마찰 사실을 직접 언급했다.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일단 선을 그었다. 황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단일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 역시 "당연히 완주 목표는 하나"라며 "단일화를 거론하면 정책 연대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



<사진=전북타임스>

붙였다.

도내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정책 연대는 사실상 단일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향후 전북 교육감 선거 구도를 크게 뒤흔들 핵심 변수"라며 "두 후보의 연대가 천호성, 이남호 등 다른 예비후보들의 향후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4일 '100번째 현대가 더비' 개최

울산HD 상대 6라운드 홈경기

전북현대모터스FC가 4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HD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리그 통산 100번째 '현대가 더비'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선두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은 2승 2무 1패(승점 8점) 리그 3위로 선두권을 뒤흔고 있으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울산(3승 1무, 승점 10점)이 2위를 기록 중이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 판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경기는 K리그를 대표하는 라이벌 매치인 '현대가 더비'의 100번째 맞대결로 의미를 더한다.

지금까지의 통산 상대 전적은 전북 기준 38승 24무 37패로 전북이 근소하게

앞서 있다.

전북은 이번 100번째 승부를 승리로 장식해 자존심을 지키고 선두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국가대표팀 친선전을 마친 미드필더 김진규와 수문장 송범근이 팀에 복귀해 힘을 보탠다.

대표팀에서의 활약으로 예열을 마친 두 선수의 가세는 전북의 공수 밸런스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철 기자

김제 벽천미술관, 자연 흐름 담은 기획전 개최

오는 5월 31일까지 '그대로 피어나다' 전시

김제시는 2026년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도·시군 공립미술관 협력전시의 일환으로 '그대로 피어나다' 전시를 오는 5월 31일까지 벽천미술관사업소 내 벽천미술관 기획전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과 익산 예술의전당 소장 작품을 중심으로,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삶을 돌아보는 사유의 시간을 제안하고자 기획됐다. 전시에는 박민평, 윤재우, 조기풍, 이보영, 류일지, 김희진 등 작가들의 작품이 소개된다.

특히, 계절의 풍경과 자연의 흐름, 그리고 꽃의 이미지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삶이 서로 닮아 있음을 보여준다. 자

연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시간 속에서 변화하며, 인간 역시 각자의 시간에서 성장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전시가 자연과 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의 여유와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가족 뮤지컬 '콩쥐팥쥐' 공연

오는 11일 도시민 위한 문화 활용 특별공연 마련

국립전주박물관 가족 뮤지컬 '콩쥐팥쥐' 공연이 오는 11일 개최되며 도시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이번 국립전주박물관 '콩쥐팥쥐' 공연은 도시민 주말 문화 활용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마련됐다.

특히 '콩쥐팥쥐'전은 전북지역을 배경으로해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공연은 '달밤엔컴퍼니' 극단이 맡았다. '달밤엔컴퍼니' 극단은 현대적 감성과 마당극 형식으로 '콩쥐팥쥐'를 재해석했다.

'콩쥐팥쥐' 작품은 새엄마와 팥쥐의 구박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콩쥐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권선징악'의 교훈과 올바른 가치관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될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우리 가락과 발레부터 탈춤까지 다채로운 볼거리 등이 제공된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1시까지 박물관 누리집(jeonju.museum.go.kr)에서 누구나 신청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부안수협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부안수협의 모든 수산물 제품은
100% 국산 만을 사용합니다.

특허받은 뽕잎기술! **뽕잎간고등어**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혀없는 뽕잎간고등어!

뽕잎간고등어가 맛있는 이유

- 겨울철 참 고등어만 사용해 씹는맛이 다릅니다.
- 특허받은 뽕잎절임기술을 사용하여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습니다.
-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시를 발라내어 조리하시기 편리합니다.
-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시설공정으로 생산,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우수식품제조업체 인증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획득!

기시계거, 농속리촌, 반남작업, 진영모방

부안수협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전국택배판매 063-584-3101~2

익산시, 예술인-수요자 잇는 '문화예술 플랫폼' 운영

익산시가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섰다.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 예술인과 기관·단체·시민 등 문화예술 수요자를 잇는 '익산시 문화예술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플랫폼은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문화예술장터로 구성됐다.

예술인과 단체는 활동 이력과 분야, 주요 작품 등을 직접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수요자는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문화예술 정보를 확인하고 협업이나 프로그램 의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특히 '문화예술장터'는 작품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예술인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교류와 유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플랫폼 운영을 통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작·유통·향유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신재생에너지 '햇빛소득마을' 본격 시동

정읍시가 2일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발대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주민과 관계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취지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햇빛소득마을의 정책 목표를 비롯해 마을 협동조합 구성 방식, 주민 참여 절차, 사업 추진 구조 등이 집중적으로 안내됐다. 특히 농지, 유휴 부지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절차와 운영 방식이 상세히 소개돼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서 진행된 사전 수요조사에서는 관내 17개 마을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책 이해도를 한층 높이고 실제 참여 마을을 단계적으로 선정한 탄탄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의료원,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강화 위한 CS교육 실시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보호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Customer Service, 환자응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일 본관 1층 강당에서 총 4차시에 걸쳐 진행됐으며, 간호부·진료지원부서·의사직·관리부 등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참여해 환자 응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육은 ㈜엔비즈 권영미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권 대표는 가톨릭대학교 보건학 박사, 대한의료혁신연구회 회장으로 대학병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살펴 환자경험 및 응대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강사이다.

이번 교육은 △환자 중심 의료에 대한 이해 △환자 경험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치료 과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환자 중심 의료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표정·태도·말투 등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회진 및 진료 과정에서 환자 눈높이에 맞는 공감 중심 소통, 민원 발생 시 공감·경청·사과·해결 중심의 응대 절차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조준필 원장은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소통은 환자가 경험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개선 활동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조선해양 신시장 선점”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수소경제 동시 전환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커(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해,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170억 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추진시스템은 조선산업의 핵심 기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실증 플랫폼에는 △엔진 성능 평가 △



친환경선박대체연료실증센터전경

<사진=군산시>

하이브리드 배터리 및 모터 기술 △선박 엔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등 시험평가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실증센터가 준공되고 IMW급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저탄소 연료 저장·공급 시스템 등 핵심 평가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저장·공급 설비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대규모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 모빌리티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실증과

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하반기부터 시운전 및 통합 시험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험평가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은 IMO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업의 시험평가·실증·사업화를 종합 지원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산업을 동시에 선도하는 국가 실증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식품 기업, NS홈쇼핑과 ‘맞손’

14개 협력사 공동마케팅 지원... 전국 판로 넓힌다

익산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인 '전북 익산형 일자리' 협력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대대적인 공동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전북 익산형 일자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14개 참여 기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본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구축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식품 기업들이 '하림' 계열사인 국내 유통기업 ㈜엔에스쇼핑(NS홈쇼핑)의 인프라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 기업들이 공동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

망이다. 이를 통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고용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익산형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기업들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추진 의지, 기업 역량, 상품군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신규 고용 창출 의지와 사업 참여 경험 등을 비중 있게 다뤄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살폈다.

그린로드(작두콩차), 라라스팸(두부), 모닝팜(서리태) 등 익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기업들이 다. 이들 기업은 향후 총 4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업당 700만원 상당의 'NS쇼핑 홍보·판촉 패키지'가 지원된다.



<사진=익산시>

내용을 보면 △고객관계관리(CRM) 메시지 △एम 푸시 △장문문자메시지 발송 △익산형 일자리 전용 브랜드관 운영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지역 기업들이 대형 유통 플랫폼을 경험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재생에너지 설비 총 250개소 지원

군산시가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로,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난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안내는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대표사인 주식회사 세원이엔에스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보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07개소(1,385kW), 태양열 16개소(224㎡), 지열 27개소(472.5kW)로, 사업 완

료 시 연간 약 2,300MWh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7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는 연간 733T0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갑 군산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

124개 농가에 전당 최대 35만원

정읍시가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취급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는 매년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이 지정한 기관의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신청료와 관리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시는 유기농·무농약 등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관내 124개 농가에 전당 최대 35만원(전류 농약 검사 포함 시 최대 44만원)의 인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유기·무농약 가공식품 생산자와 취급자에 대한 인증 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

제 소요 비용의 85% 수준이며, 가공식품 인증비는 전당 최대 100만원, 취급자 인증비는 전당 최대 55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및 사업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가공식품 인증서, 취급자 인증서 등 관련 증빙 자료 사본과 신청서를 오는 11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사진=익산시>

익산시, 시청 열어 판로 막힌 농가 돕는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청사의 문을 활짝 연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 1층에서 '로컬푸드 상생 장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장터에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농가가 참여해 우수한 품질의 제철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등 30여 품목을 선보인다.

시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점유 사태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장터 정기 운영은 지난 임시

운영을 통해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확대를 통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는 “직매장 운영 중단으로 애써 키운 농산물을 판매할 길이 막막해 걱정이 컸는데, 시청에 장터가 열려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장터는 위축된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생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관광 대상 수상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군산시 항만해양과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 해양레저관광 박람회'에서 '해양레저관광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해양관광 정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개막식에 권은경 교통해양수산국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해양수산부,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연합뉴스TV가 공동 주최했으며, 해양레저관광·홍보마케팅·커뮤니케이션·아이디어 공모전·우수 서포터즈 등 5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16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중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총 9점이 선정됐으며, 군산시는 '해양문화 확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인 '오션팰레트' 조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응모했으며, 체험형·교육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은경 군산시 교통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해양관광 정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해양레저와 지역문화, 교육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경진 의장은 대표위원인 송영차 의원을 비롯해 맹진용(세무사), 김경호(前 농협 근무), 김시영, 김진성, 박신식, 이범용(이상 前 공무원)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달 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위원들은 행정·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 기금 등 익산시 재정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김경진 의장은 “결산은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해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대표위원인 송영차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나아가 건전한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보건소 '벚꽃길 걷기' 챌린지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문다해)가 봄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벚꽃길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군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은파호수공원, 월명산, 월명체육관, 수시탑 등 군산의 주요 벚꽃 명소 코스 중 2곳 이상의 스탬프를 인증하고, 기간 내 총 10만 보 걸기를 달성하면 된다.

참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5천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벚꽃길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워크온' 앱 설치 후 군산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따뜻한 봄날을 맞아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부안·고창, 경제·건강 지원 나서 2(題)

부안군,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 성과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녕)는 소규모 가공업체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농식품 가공업체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공제품의 홍보 및 유통망 다변화를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외소득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업체인 '뽕의소리(대표 이철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수원 메가쇼에 참가해 인기 제품인 편육과 신제품인 감자탕을 선보여 현장 판매 및 홍보를 통해 총 2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 지원뿐만 아니라 상세 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가공업체의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와 홍보 지원을 통해 지역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감염병 선제 대응 나선다

고창군이 2일 '보건소 통합방역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보건소 방역기동반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감염병 없는 건강한 고창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감염병 매개 모기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방역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고창군은 4월부터 방역기동반 5개 반을 운영해 해충 서식 취약 지역과 공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정기 점검을 병행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동절기·해빙기 유충구제 활동을 추진하며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

특히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방역 시기에는 방역 범위를 마을 단위까지 확대해 위생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총총한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 없는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예술회관, 코믹 뮤지컬 '넌센스' 공연

24일 막 올려

부안군은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뮤지컬 '넌센스(Nonsense)'가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미국 극작가 댄 고긴이 대본과 음악을 직접 만든 작품으로 1985년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Cherry Lane Theatre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에서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인기 작품이다.

5명의 배우가 모두 수녀로 등장하는 독특한 설정과 유쾌한 코미디, 재치 있는 음악이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뮤지컬은 뉴저지의 호보켄 성 헬렌 학교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요리사 줄리아 수녀가 만든 야채 수프를 먹고 무려 52명의 수녀들이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고 살아남은 5명의 수녀들이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공연을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려낸다.

특히 국내에서도 오랜 기간 사랑



<사진=부안군>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 뮤지컬'로 불릴 만큼 많은 관객들에게 친숙한 작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초등생 이상 관람가이며 관람료는 5,000원이다.

좌석예매는 오는 16일부터 현장 발권 및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580-3930)로 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 시티투어 버스, 4일부터 운행 시작

역사생태 코스 및 시즌 특별 코스도 선보

고창군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 버스를 오는 4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 버스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제공해 '고창에 더 오래 머물며 즐기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창의 풍부한 역사·생태·세계유산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시티투어는 최근 여행 트렌드인 치유관광을 핵심 콘셉트로 잡았다.

고창읍성과 황윤석도서관, 상하농원 등 고창을 대표하는 치유 관광지를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고창군은 계절별 축제와 연계한 '시즌 특별코스'도 선보인다. 청보리밭 축제와 벚꽃 시즌 등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



고창 시티투어 버스 탑승 사진 <사진=고창군>

정해 지역 축제와 주요 거점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운행 시간은 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오전 10시 고창 임시터미널을 출발, 주요 명소를 거쳐 오후 5시경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특히 전일정에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여행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티투어 이용을 원하는 관광객은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예약은 불가하다. 일자별로 운행 코스가 상이하므로 방문 전 고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선을 확인해야 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동의 편의는 물론, 전문 해설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여행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새만금항 신항 주변 연중 환경정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

김제시는 2026년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선별된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이달부터 본격적인 연안 환경정비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지원사업은 해양쓰레기 상습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와 감시 활동을 병행해 연안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는 관할해역인 새만금항 신항을 중심으로 새만금 2호 방조제 일원 자연섬부터 너울섬터 구간까지 추진한다.

지난 1일 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과 함께 근무수칙 및 복무사항 안내, 주요 사업 구간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이후 약 10.94km에 이르는 해안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양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환경감시와 정화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해안 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사회 환경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부시장은 "김제시 관할 해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로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종량제봉투 수급에 큰 이상 없어"

최근 3개년 판매·사용량 대비 120일분 보유증

김제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의 여파로 불거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시 최근 3개년 종량제 봉투 판매·사용량 대비 120일분 보유증'이며, 판매 공급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긴급 상황'에 대비해 봉투

공급 업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부 판매소에서 봉투의 일시적 재고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적 수급 불안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주요 판매소와 협력해 재고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 보유 물량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

로 규정돼 있어 원자재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근거 없는 불안으로 인한 사재기 및 불법 가격 인상 행위에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수급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는 시민 일상을 위한 공공재인 만큼, 사재기 없이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식목일 맞아 청림나무심기 행사 열어

산림사업 안전결의 대회도

고창군이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2일 오후 고창읍 내동리 일원에서 '청림나무심기 행사'와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창군수를 비롯한 군청 공무원, 산림조합, 고창치유숲, 조경수협회, 임업후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총 1.5ha에 편백나무 1500주를 심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총 35ha 규모로 추진되며, 편백과 상수리나무를 식재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청림나무심기와 함께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

한 산림사업 안전결의문 낭독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정음국유림관리소에서 유실수 나무 나눠주기 행사에 동참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고창군과 고창군산림조합은 조림, 숲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 시행 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청림나무심기 행사와 산림사업 안전결의대회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림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숲 조성과 함께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80개 공약사업 중 총 65개 사업 완료

고창군이 지난 1일 민선8기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공약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매니페스토 특강과 공약이행평가단 평가회의를 함께 개최했다.

먼저, 매니페스토 특강에서는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고창 매니페스토 Report 2026'을 주제로 민선8기 공약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무원과 평가단의 역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한 공약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평가회의에서는 80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실무부서와 평가단이 함께 점검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제출된 평가자료와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총화본논의 끝에 민선8기 공약이행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우수'로 평가·의결했다.

민선8기 고창군 공약사업은 6대 분야, 15대 전략, 80개 공약사업으로 이중 21개 사업은 완료, 44개 사업은 이

행 후 계속추진으로 분류돼 총 65개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2026년 3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90.62%로 전년도 동일(80%) 대비 10.62% 상승해 공약 추진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 이행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결과가 빛을 내고 있다"며 "남은 기간동안 공약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부안읍, 자연식품 제83호 착한가게 선정

부안군 부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경)는 2일 자연식품(대표 남정수)을 방문해 제83호 착한가게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남정수 자연식품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남정수 대표는 평소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선정을 꾸준히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착한가게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

김경 민간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가 큰 의미를 가진다"며 "착한 가게가 더욱 확대돼 나눔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로컬JOB센터, 벚꽃축제 앞두고 석정지구 환경정화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양치영)는 3일 개최되는 '제4회 봄, 봄, 봄 고창 벚꽃축제'를 앞두고 고창읍 석정지구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센터 관계자들은 석정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특히 도로변과 공원 주변 등 관광객이 이동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펼쳤으며, 지역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축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양치영 센터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벚꽃축제를 앞두고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창군 고용 안정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고창 군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서비스 및 기업지원과 지역 내 공익 행사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 기관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오는 17일 김제문화예술관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공연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초호화 버라이어티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완다랜드'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인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완다랜드'는 토끼굴을 따라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간 소녀 앨리스가 기묘한 인물들과의 만남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을 겪는 스토리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모든 세대의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의미 있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는 강력한 울림을 보여준다.

가상 현실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몰입감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웅장한 오케스트라 음악과 중력을 거스르는 서커스 퍼포먼스,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 요소가 어우러져 앨리스가 꿈꾸는 '이상한 나라'를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완성한다. 3D 애니메이션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은 끊임 없이 변화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며, 물리적인 무대 전환을 최소화 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뮤지컬 경험과 높은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해리면, 찾아가는 건강 체크 프로그램 '호응'

고창군 해리면은 지난 1일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건강 체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맥 경화검사, 심방세동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과 함께 개인별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 주민들의 건강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

홍정목 해리면장은 "이번 찾아가는 건강 체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질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수 경선 공천 갈등...판세 '소용돌이'

컷오프 절차·공정성 문제 제기 후보 3인 공동행보...단일화 거론 완주·전주 통합 이슈 입장 충돌

오는 6.3 지방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경선을 둘러싼 공천 갈등이 불거지며 향후 선거 판세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컷오프 된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이번 공천은

절차와 상식을 모두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민주당 전북도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눈길을 끈 것은 현직인 유희태 군수를 제외한 이돈승, 서남용, 임상규 예비후보 3명이 국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자리에 함께해 공동 메시지를 내며 정책 연대,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명확한 입장 일치를 보이고 있어 '연대의 현실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들은 "완주, 전주 통합과 관련, 현 군수는 아직도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합 논의로

갈등을 빚은 지난 2년간 통합 반대라는 공동기치 아래 함께 해 온 동지적 관계로 완주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단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완주를 지키고 사랑한다는 같은 목적성을 갖고 있다"며 "단일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피력했다. 아직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깊이 있는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날 함께 자리한 만큼 연대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질 경우 완주군수 선거판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적극행정 노력 통했다...전국 '우수'

행안부 주관 종합평가서 선정 인센티브사전컨설팅 높은 평가

완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체감 적극 행정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 △우수공무원 선발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사전컨설팅 처리 △대표성과 홍보 노력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모호한 법령 해석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함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맞춤형 교육 강화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군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부서 간 벽을 허무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성과는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정식 개장

남원시는 지난 1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풋살장을 정식 개장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4년 전북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선정, 총사업비 30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풋살장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사업으로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풋살전용 주경기장(45m x 25m) 1면과 보조경기장(25m x 16m) 1면 등 총 2개의 경기장을 조성했다. 남원시 풋살협회는 남원에도 국제규격의 풋살장이 조성돼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풋살장 정식 개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원시장은 "이번 풋살장 조성으로 남원시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야 운영되며 1회 3시간 10,000원~17,0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전북 경찰특공대 완주군으로...치안 거점 시동

군·전북경찰청 청사 신축 MOU 노후시설 개선...훈련환경 강화

완주군과 전북경찰청은 2일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경찰특공대 이전 및 청사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북 경찰특공대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북 지역의 재난·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경찰청 김철문 청장을 대신해 채정수 경비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의



완주군-전북경찰청 업무 협약식. 사진=완주군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의 이전과 관련된 부지 매각 및 청사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전북경찰특공대 이전을 위한 완주군 내 부지 확보

및 행정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 지원 및 협력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청사 건립 시 지역업체 참여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이전 부지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확장성이 뛰어나 향후 전북권 광역 치안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 특화 창업보육 주관 선정

중기부 공모 선정 특화 지원 추진 IP·해외진출 등 단계별 고도화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달 25일 최종 선정됐다.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창업보육센터를 선정해 지역의 특화지원을 연계한 창업보육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2년간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6천6백만 원을 투자하여 남원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 내 창업보육센터 창업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한다. 올해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이 이루어지며, 입주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목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사업화 기술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리뉴얼 개발·생산 지원 △국내 마케팅 지원 등이다. 내년에는 △지식재산(IP) 확보 △인증·임상·시험·검사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기반 조성 등 기업 성장 단계에 맞춘 고도화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4월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10개 기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 첨단산업비즈니스센터에 9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공약 이행률 86.1%...민선8기 마무리 '순항'

1.3%p 상승...전국 평균 크게 상회 전기차 등 일부 공약 조기 달성

순창군이 새해에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높은 이행성과를 이어가며, 임기 마무리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유지하고 있다. 군은 2026년 1분기 기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5개 분야 79개 공약 가운데 68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 완료율 8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말 대비 1.3%p 상승한 수치다. 현재 정상 추진 중인 11개 사업을 포함한 전체 공약의 평균 추진율은 95.4%로 집계됐으며, 사업 대부분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1분기에는 △전기차 보급 확대 지원이 임기 초 공약목표인 전기차 지원대수 307대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면서 "완료(이행 후 계속추진)"단계로 전환됐다. 이 밖에도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완공을 앞둔 보훈회관 건립사업과 △2분기 착공 예정인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강의예술미래공간) 구축사업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민선 7기 임기말 기준(2022년) 전국 지자체 평균 공약완료율이 71.72%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선 8기 순창군의 공약완료율은 이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공약 이행에 있어 전국적으로도 경쟁력

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완료 공약사업들 또한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군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배심위원단을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사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교육부 공모 선정...평생교육 확대 가동

전북 4개 시군 연합 선정 성과 디지털·인생학교 등 교육 확대

순창군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익산·김제·순창 4개 시·군이 연합해 참여했으며, 전국 5개 권역 중 하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국·도비를 포함해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생학교 △

달리는 배움터 △로컬공방형 배움터 △e로운 디지털생활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교실 △배움페스티벌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전북권 대학과 공공·민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 지원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추진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춘향의 도시 남원, 주말마다 전통문화 '풍성'

'신관사도 부임행차' 20주년 맞아 외국인·예비부부 '전통혼례 체험'

남원시가 4월부터 지역의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고전 '춘향전'을 재해석한 '신관사도 부임행차 공연'과 우리 고유의 예식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07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544회의 공연 기록을 세운 "신관사도 부임행차"는 올해로 운영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해 올해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은 사람의 광장에서 출발해 춘향교 삼거리를 거쳐 광한루원까지 이어지는 거리 퍼레이드로 포문을 연다. 이어 취타대 연주, 기생과 육방의 파포만



신관사도 부임행차. 사진=남원시

스, 어사출두 마당극 등 재치 넘치는 공연이 약 2시간 동안 펼쳐진다. 해당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는 광한루원과 예루원 일대에서 '전통혼례 체험'이 열린다. 신랑·신부의 신행길 놀이부터 티움림, 대례의식 등 고유의

혼례 절차를 생생하게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외국인, 다문화가정,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선착순 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상반기 참여가 확정된 8쌍 중 3쌍은 실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어서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부서별 평가 대응 점검 보고회 개최

중앙·도 평가 분석 개선 논의 58개 평가 중 24개 중점 점검

순창군은 지난 1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13개 부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부서별 평가대응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중앙 및 전북도 단위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총 58개 평가 중 중점관리 대상 24개에 대한 부서별 대응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와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평가 지표별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제정세 불안과 국내 경제여건 변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평가 대응을 단순 실적 관리가 아닌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점검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중앙 및 전북도 단위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향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희 순창부군수는 "평가 대응은 우리 군 행정의 수준과 대외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부서별로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간의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강화하는 한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시니어 걷기리더 주축 '수요일엔 남원 한바퀴'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일상 속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걷기 실천 프로그램인 '수요일엔 남원 한바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우리 동네 시니어 걷기리더'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리더들이 주축이 되어 이끈다. 참여자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사랑의 광장에 집결해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마친 후, 오전 10시 30분 코스를 함께 걷는다. 현장에는 운동 지도사와 걷기리더가 배치돼 올바른 걷기 자세를 지도하고 마무리 운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민들을 지원한다. 특히 시니어 걷기리더들은 프로그램이 열리는 수요일 외에도 평일(월,화,목,금) 동안 도동동, 향교동, 노암동, 금동동 등 각 지역에서 꾸준히 걷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니어 걷기리더를 중심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걷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군, '평생 배운다' 노인대학 제24기 입학식

무주군은 2일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정진욱 노인대학장, 이광부 무주군지회장을 비롯한 제24기 노인대학 입학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제24기 무주군 노인대학 입학생은 총 110명으로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3시간 동안 수업받는다.

수업은 △외래 강사 및 기관·사회단체장 초빙 특강, △교양 상식, △교통안전, △생활 예절, △생활체육, △노래교실, △치매 예방 관련 교양강좌와 현지 견학(수학여행)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나이 들어 배우는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도 비할 길이 없다"라며 "나에게 뜻밖이고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오픈

**1일 기숙사 준공식 개최
사업비 65억 지상 4층 규모
최대 87명 근로자 투숙 가능**

임실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일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해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정철석 오수관농협 조합장과 임실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임실군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전라북도 농업근로자 기숙사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오수면에 건립됐으며, 연면적 1,717㎡,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기숙사는 총 29개의 객실을 갖추고 최대 87명이 생활할 수 있으며, 각방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공용세탁실과 공동 주방 등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임실군은 지난 1일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임실군>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군은 오수관농협과 협력해 소규모·고령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공영형 계절근로자사업을 5년연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농번기를 앞두고 3월말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40여 명이 이 기숙사에 입주해 본격적인 농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기숙사 준공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인권보호는 물론, 농업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숙사 준공을 계기로,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농촌인력충충센터 운영, 농촌인력지원사업 등 다양한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원스톱으로 추진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 개강

**아이들 건강도 챙기고
축구실력·자신감키우고**

무주군 '차범근 축구교실'이 2일 개강식을 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등나무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차범근 (사)팀 차범 이사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을 비롯한 참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 학생들이 올해도 차범근 축구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방과 후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범근 이사장은 "무주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는 모든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로 즐겁다"라며 "아이들이 차범근 축구교실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차범근 축구교실'은 무주초, 중앙초, 설천초, 구천초, 괴곡초 등 학교 학생 73명이 참여하며, 매주 목요일 15:30-17:30까지 2시간 동안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전문 지도자로부터 경기 지도를 받게 된다. 자체 리그 경기에도 참여해 실전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제7회 장수트레일레이스 개최

**자연·역사 품은 산악 코스
장수의 매력 체험**

전북 장수군에서 한국의 사모니를 지향하는 '제7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락앤런(대표 김영록)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0K, 38K-P(팔공산), 20K, 5K, 4K-VT, KIDS 등 총 6개 코스로 운영되며, 3일 4K-VT 코스를 시작으로 4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트레일러닝은 인공 트랙이나 아스팔트나 아닌 숲길과 흙길 등 자연 지형을 달리는 스포츠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안산과 장수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 등 장수군의 대표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산악 지형을 따라 달리며 장수만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영록 대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장수군이 산악레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국내 최고 수준의 트레일레이스 대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삼계면지사협,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

임실군 삼계면지사협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365일 안심 등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365일 안심 등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은 삼계면지사협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올해까지 5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및 안전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삼계면지사협보장협의체는 가로등 설치 사업 외에도 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만든 빵을 나누는 '사랑빵빵 영양빵빵' 사업과 문화 취약계층에 문화활동을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손에(愛)손잡고 꽃길만 걸어요' 나들이 사업 등 지역민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베세레 민간위원장은 "삼계면지사협보장협의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사업 유치 쾌거

진안군이 군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진안군과 순창군이 최종 선정되며,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진안읍 군산리 909-6번지 일원(대지면적 10,895㎡)에 전용면적 59㎡ 규모의 공동주택 10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20억 원으로, 전북개발공사 160억 원, 도비 80억 원, 군비 80억 원이 투입된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과 시공을 맡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으며, 모든 입주민에게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의 '반값 임대료'가 적용된다.

군은 향후 전북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공급 세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근로자 확보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무주군이 지역 내 벼 재배 1,498 농가에 '벼 육묘상 처리제' 8,099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벼 육묘상 처리제'는 벼씨 파종 시 처리하거나 이앙 전 도판에 약제를 살포하면 이앙 후에도 약효가 지속돼 생육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특히 '깨씨무늬병', '키다리병', '흰잎마름병', '잎도열병', '애멸구' 등의 예방에 효과가 크며, 약제 처리 방법이 간편하고 방제 비용도 저렴해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장은 "벼농사 풍년을 위해 적기 이앙과 육묘상 처리제 사용을 당부하고 있다"라며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이 초기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에 이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총 13억여 원을 투입해 벵기 환원, 회원 조직화, 소규모 육묘장 운영 등 '쌀 경쟁력 제고 사업'을 비롯한 '우량 육묘 지원(360만 786ha)', '벼 육묘용 산도 지원(경량상도 786ha)' 사업 추진에 주력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남원시, 의료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가 장수군보건의료원을 가지지 않고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로 직접 이송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이송시간을 단축하고 치료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높여 응급환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기관은 장수군 보건지소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남원의료원의 의사 인력을 활용한 순회진료 지원에 협력하고, 장수군보건의료원은 협력진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로컬JOB센터, 맞춤형 일자리로 인력난 해결

노동상생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임실군이 지역 고용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실군 로컬JOB센터'가 현장 중심의 행보로 지역 주민과 기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실군 로컬JOB센터는 도시 지역의 정형화된 고용 서비스에서 벗어나, 임실군만의 특수한 고용 환경을 반영한 '노동 상생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단순히 구인 정보를 공고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관내 농가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조율하는 '발로

뛰는 매칭'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인-구직 간의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돋보인다. 센터는 원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운 구직자에게 매일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을 채용하는 경영체에는 중식비를 보조해 고용 부담을 낮췄다.

특히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참여자 전원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고용의 질'까지 고려한 세심한 행정으로 풀이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장수군은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화를 위해 오는 5월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3월 말 기준 총 체납액 19억 7,200만원 중 33.1%에 해당하는 6억 5,3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처분 등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체납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유관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납세를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 등 강력문을 일괄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여력이 부족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개별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징수 방식을 적용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효용성을 높여겠다는 취지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간소화

임실군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점차 간소화를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총 578명에게 1,075필지(112만㎡)에 달하는 토지 정보 제공에 성공적으로 조상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청 방법은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 신분증과 제적등본 등을 구비하여 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특히 군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2008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종합민원과 장구 방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열람해 처리함으로써 별도의 첨부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 팔봉동 염규안 씨, 7년째 이어온 나눔

2일, 팔봉동지사협에 성금 500만원 기탁

익산시 팔봉동 주민의 꾸준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팔봉동은 2일 지역 주민 염규안 씨가 팔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팔봉동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염규안 대표는 금속제품 도매업체인 ㈜삼현철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



년부터 매년 팔봉동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염규안 대표는 "팔봉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식 공동위원장은 "오랜 기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군 청웅면사무소는 지난 1일 면 소재지 도로 및 가로화분에 펜지, 비올라 등 아름다운 꽃 2천3백본을 식재했다 <사진=임실군>

임실 청웅면 봄맞이 도로변 꽃길 조성

꽃 2천 3백본 식재

임실군 청웅면사무소는 봄기운 가득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면 소재지 도로 및 가로화분에 펜지, 비올라 등 아름다운 꽃 2천3백본을 식재했다.

이번 꽃길조성은 주민과 방문객들이 화사한 꽃들의 꽃향기를 맡으

며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면소재지 좌우도로변 및 주변에 꽃길을 조성했다.

이윤도 청웅면장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희망의 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농업분야 협력 기반 확대

장수군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상호기부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에는 장수군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각각 25명이 참여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호 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며 뜻을 모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상생 정책으로 자리



참고 있다. 양 기관은 그동안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 역량 강화,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가운데, 이번 상

호기부를 계기로 농업 분야 공공기관 간 연대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수란 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준 양 지자체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가 지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농업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상호기부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고,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고창 아리랑추어탕,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응원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120명에 온정 담긴 식사 지원

고창군은 지난 1일 고창읍 소재 '아리랑추어탕(대표 정기호)'과 협업해 관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20여 명에게 지역의 온정이 담긴 식사(100만 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지역 공동체의 일원인 보호아동들이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하며 밝게 자라길 바라는 정기호 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정기호 아리랑추어탕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든든한 응원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자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발맞추어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군 인재양성과 김미란 과장은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지지망을 통

익산 금마면, 착한가게 참여 이어져

익산시 금마면에서 착한가게가 잇따라 늘어나며 나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금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구·전영선)는 2일 '만나먹거리촌(대표 배경애)'과 '신양평해장국(대표 방은주)'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만나먹거리촌은 황태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한식 전문점이며, 신양평해장국은 해장국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맛집이다. 전영선 금마면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 운봉로타리클럽, 바래봉철쭉보호 봉사활동

바래봉 철쭉 잡목·넝쿨 제거 등
등산로 환경정비 실시

남원시 운봉읍 운봉로타리클럽 회원 10여 명이 지난 1일 철쭉 잡목 정리, 잡초 제거 등 바래봉 등산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철쭉 생육을 방해하는 넝쿨과 잡목 등을 제거하여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최태운 운봉로타리클럽회장은 "철쭉 군락지로 유명한 운봉읍을 찾는 관광객

들이 아름다운 철쭉을 감상하며 등산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살기 좋은 운봉읍을 만드는 데 운봉로타리클럽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표 운봉읍장은 "바래봉 철쭉 보호를 위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비에 힘써주신 운봉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운봉로타리클럽은 △무연고 묘별초 △현충일 자정면 나눔 봉사 △연말연시 나눔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뜨뜨가무시증

가장 좋은 예방법

예방수칙 실천

풀밭에 앉을 땐 돛자리를 깔고 앉기

작업 시 긴 옷에 토시와 장화를 착용

야외 활동 후 즉시 옷을 털고, 세탁하고 바로 샤워나 목욕하기

고열, 발진, 가피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치료 받기

사설

김관영 '현금 의혹' 파문, 도덕 불감증 민낯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현금 제 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 사를 전격 제명했다. 폐쇄회로 영상에 포착된 현금 제공 정황은 도민은 물론 국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고,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방증한 다. 지방 권력의 핵심에 선 현직 광역단

정치 문화의 퇴행을 드러낸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신뢰를 잃는 순간,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것도 바로 청년 세대다. 그런 점에서 당시 도지사로부터 돈을 받은 참석자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민중당이 신속히 제명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후 조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공천 과정과 내부 감시 시스템을 재점검해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특정 정당을 넘어 우리 정치 전반에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이름의 느슨한 윤리관 역시 이번 기회에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작은 일탈을 방치할수록 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단순한 구도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공직자는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 다. 특히 선출직 지도자는 그 지역의 품격과 신뢰를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가 필수적이다.

향후 경선 과정에서 김 지사의 행보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가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추었느냐'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물 검증의 기준이 한층 엄격해져야 하는 이유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 비용 지원 차원의 제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그 행위가 공적인 자리에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치인의 처신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맥락까지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된다. '의도는 선했다'는 항변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 책무다.

정치는 신뢰로 작동하는 공적 영역이다.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이번 도지사 경선이 도덕성과 책임 정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청년 당원들과의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래 정치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금품이 오가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면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 책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청년 당원들과의 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래 정치의 주역이 될 청년들에게 금품이 오가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으로 꿈 이어간다

꿈키움·KSD 장학금 선발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일신)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과 KSD나눔재단이 추진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소속 학교 밖 청소년이 장학금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이지역 청소년은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꿈키움 장학금' 장학금으로, 신수연 청소년은 KSD나눔재단이 추진하는 '2026년 KSD 꿈드림 장학사업' 장학금으로 각각 선정됐다. 장학금으로 선발된 이지역, 신

수연 청소년은 평소 높은 학업 의지와 성실한 태도로 검정고시 준비 및 진로 탐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장학사업에 최종 선발됐다. 지원되는 장학금은 향후 학습 활동과 자기개발, 진로 준비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일신 남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사진=남원시>



장수군 계남면, 봄맞이 환경정화·꽃잔디 식재

장수군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화식)는 최근 계남면 백화마당 및 화음 교차로 표지석 일원에서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과 식목일 기념 꽃잔디 식재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방문객과 지역주민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은 백화마당 주변에 버려진 페트병, 과자봉지, 비닐류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

거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어 해당 구간에 꽃잔디를 식재해 경관을 개선하고, 화음 교차로 표지석 일원에서는 바다 자갈을 정비하고 표지석 물정소를 실시하는 등 환경 정비에 힘썼다. 최화식 위원장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남면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장서겠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계남의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시 상교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정읍시 상교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유성임)가 지난 1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요리 및 나눔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녀회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정성

을 담아 육개장, 배추김치, 제육볶음 등 밑반찬을 직접 조리했다. 완성된 반찬은 관내 소외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됐으며 회원들은 반찬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살피는 등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유성임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오늘의시

물의 처녀 / 문정희

붉은 물이 흐른다
더 이상은 벌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벌린 두 다리 사이
하늘 아래 가장 깊은 문 연다
치욕 중의 치욕의 자태로
참혹한 죄인으로 죽음까지 당도한다
드디여 다산(多産) 처녀의 속삭에서
소혹성 같은 한 울음이 태어난다
불당이의 처음과 끝에서
대지모(大地母)의 삶과 뼈에서
한 기적이 솟아난다
지상에 왔다가 감히 그 문을
벼락처럼 연 일이었다
뽀얀 생명이 흐르는 부른 쪽쪽지를
언어의 입에다 쪽쪽 물려 준 적이 있다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여자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데', '질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이용악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한국문학관 관장과 제40대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농업, '보호'의 대상에서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올해 1월,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정부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한 것이다. 이제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방-에너지와 같은 수준의 안보 자산으로 관리된다. 이는 오랫동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던 농업이 국가 미래 전략의 중심으로 재배치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농업이 '관리'에서 '투자'로, '전통'에서 '전략'으로 이동했음을 선언한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 농업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 왔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농가 소득

정책, 국제 경쟁 심화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이 아닌 쇠퇴 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기후위기는 식량 확보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농업의 전략산업 지정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다. 무엇보다 이번 지정은 농업을 '식량 안보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도체가 기술 주권의 상징이라면, 농업은 국민 생존의 최후 보루다. 수입에 의존한 식량 체계는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국내 생산 기반 없이는 국가의 위기 대응 능력도 제한된다. 농업의 전략산업화하는 자금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핵심 장치다. 또한 농업이 본격적인 기술-데이터 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스마트팜, 인공지능 생육 관리, 농업 로봇, 탄소 저감형 농법은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다. 전략산업 지정은 농업 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혁신을 촉진하고,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제도적 토대가 된다. 이는 농업을 '힘든 일'이 아닌 '첨단 산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 신호이기도 하다. 사람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농업이 전략산업이 되었다는 것은 농업인이 단순 생산자가 아니라 국가 전략 수행의 주체라는 의미다.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한 소득 안정, 창업 지원, 전문 교육 체계가 국가 인재 정책과 연결되면서 농촌은 더 이상 떠나야 할 공간이 아닌 도전의 무대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농업은 식품, 바이오, 에너지, 환경 산업과 결합하며 산

업 확장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생산에서 가공, 유통, 수출, 탄소 감축까지 이어지는 농업 가치사슬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성장 전략을 동시에 견인할 잠재력을 지닌다. 국가전략산업으로 선택은 단기 성과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설계이자, 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다. 농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지금, 중요한 것은 선언 이후의 실행이다. 이 변화가 일회성 정책이 아닌, 농업 구조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답작팀장 이인석

본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재 열전



불주사대웅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적건조물, 불전
-지정일- 1985년 8월 16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 836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4월 3일 금요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가-00022(광주)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시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익산시 010-9560-3075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김제지국 010-4572-6112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장수지국 010-8826-6049
순창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태권도 청년, 딸기와 사랑에 빠지다:

‘전주 동산베리팜’ 김대진 대표의 달콤한 도전



사진제공: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홍보팀



태권도 유망주에서 연 매출 2억 원의 베테랑 농부로 변신한 청년이 있다. ‘전주 동산베리팜’의 김대진 대표는 운동선수의 길 대신 부모님의 권유로 농업에 뛰어들 후, 고품질 품종인 ‘홍희’ 딸기를 통해 자신만의 청년농부의 길을 가고 있다.

특히 초기 자본과 기술 습득의 어려움을 부모님의 든든한 지도와 협력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모델을 보여준다. 전주 근교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고당도 완숙과’를 출하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김 대표의 농장을 취재했다.

1. 도복 대신 정장 가위를 잡다: 운동선수의 과감한 변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도심의 소음이 잦아들 무렵 나타나는 넓은 비닐하우스 단지 속에는 ‘전주 동산베리팜’이라는 이름의 딸기 농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주인장 김대진 대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트 위를 누비던 태권도 유망주였다.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공을 살려 사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죠.” 진로로 고민하던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은 부모님이었다. 농업의 가능성을 먼저 내다본 부모님

의 권유로 그는 과감히 도복을 벗고 휴과 식품을 만지는 농부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2.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멘토’와 함께한 초기 정착

청년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경험 부족이다. 김대진 대표 역시 토지 확보와 자금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고충을 겪었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부모님은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농사 경험이 풍부한 부모님은 김 대표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자 동료였다.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

부모님 경험과 청년 열정이 만난 스마트팜, ‘80~90% 완숙과’로 전주 시민 입맛 사로잡다

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재배 기술 습득부터 농장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부모님과 끊임없이 의논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초보 농군이었던 그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되었다. 곁에서 지켜봐 주고 함께 고민해 주는 가족의 존재는 김 대표가 농업에 빠르게 정착하고 자신감을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3. ‘홍희’ 품종과 스마트팜이 만난 고품질 혁명

김 대표가 선택한 주력 품종은 ‘홍희’다. 홍희는 일반 딸기에 비해 과실이 크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특유의 향이 감도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과육이 단단하여 식감이 훌륭하고 저장성까지 갖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품종이다.

김 대표는 이 우수한 품종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 ICT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허리 높이에서 재배하는 고설재배 방식을 통해 위생과 효율을 동시에 잡았다. 현재 그는 전북

농업기술원의 육묘 시범포 역할을 수행하며 약 1,200평 규모에서 연 매출 약 2억 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4. 유통의 차별화: ‘80~90% 완숙과’의 신선한 승부수

전주동산베리팜의 정점은 유통 전략에 있다. 대형 공판장으로 멀리 보내는 일반 농가들은 배송 중 무름을 방지하기 위해 딸기가 채 익기도 전(약 60~70%)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주 동산베리팜은 전주 시내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심분 활용한다.

김 대표는 딸기가 충분히 익어 맛이 좋은 80~90% 완숙 상태에서 수확하여 즉시 출하한다. 갓 수확한 완숙과의 풍부한 향과 당도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전주근교 로컬푸드 매장과 이마트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 농장, 체험과 휴식의 공간으로:

6차 산업의 비전

김대진 대표가 그리는 미래는 작물을 키우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농장을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6차 산업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미 농장 내에 사무실과 교육장을 마련하여 관련 교육,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딸기 따기 체험과 디지털 만들기 클래스를 준비 중이다. 그의 최종 목표는 농장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베리 카페’를 운영하며 이색적인 디저트와 힐링 활동을 제공하는 지역의 명소를 만드는 것이다.

6. “배움이 살길이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김 대표는 “딸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결국 배움이 살길이다”라는 신념으로 딸기 마이스터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 청년 4-H와 전주 딸기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청년 농업인 커뮤니티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부모님의 든든한 안내로 시작해 이제는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김대진 대표. 운동선수의 열정과 청년의 감각,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어우러진 ‘전주 동산베리팜’은 청년 농업의 힘찬 전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훈 기자